

서평 〈삼고로드의 재판〉

# 실존의 인간, 존재의 주인 앞에서 절규하다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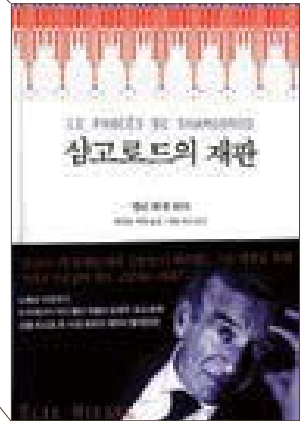
러시아 철학자 베르자예프는 “인간은 철저히 종교적이다”고 규정했다.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가 내재해 있듯 종교적 속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세계 종교에 속하는 고등 종교이든, 아니면 미신적 수준의 샤머니즘이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과연 어떤 사람이 ‘신’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신은 존재의 현상을 넘어선 존재 자체이다(P. Tillich). 그렇다면 완벽한 존재에서 이탈한 실존자는 존재자와 어떤 연관 속에서 살아 가는가.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가 그 자녀와 맺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가족 관계라고.

하지만 실존자 인간은 환란과 위기가 난무하는 인간 상황(conditio humana)의 한가운데서 부르짖는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이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왜 당신의 피조물이 이토록 처절한 상황 속에 놓이도록 좌시하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을 절규하게 만든다.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인가. 실존자 인간인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도 소리없는 아우성은 끊이지 않는다.

양심불량의 책임자들 때문에 거대 선박이 침몰하고 죄 없는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과연 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갈 때 신은 무얼하고 있었는가 (한 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과 그 가족을 생각해보자).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불치병으로 매순간 생명이 찾아들어갈 때 신은 정녕 도와줄 생각은 하고 있었는가 (중환자실에서 치유를 희망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자). 순박한 신앙인들이 갈등과 전쟁의 이름으로 생명을 잃고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IS 같은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크리스찬들, 혹 그와 같은 사건들을 생각해보자). 과연 실존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지 않을 이 그 누가 있겠는가.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삼고로드의 재판〉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인간 상황의 본질을 다룬 작품이다. 이 극은 유대인의 박해 역사에서 출발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 부재 (The Absence of God) 현상을 다루고 있다. 한 편의 신정론(Theodicy, 神定論)적 드라마라 하겠다. 전지전능한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 II.

〈삼고로드의 재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지었다. 위젤은 유대계 루마니아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가족들이 나치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 전쟁에서 생존한 유대인의 전형적 비극이 작품으로 형상화 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문학은 V.프랭클과 많이 닮아있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개발한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연상하게 한다.

3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두 8명이다. 연극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은 멘델, 아브레멜, 안켈이며 음유시인으로 활약한다. 주인공은 베리쉬이다. 그는 삼고로드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관집 주인이다. 당

시 수많은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고, 애지중지하던 딸 한나마저 폭도들에게 성폭력을 당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베리쉬는 참혹한 학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무서운 실존에 몸서리친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송하고 믿어왔던 ‘신’마저 참담한 현실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베리쉬는 ‘신’을 떠난다. 그는 유대인 박해가 끝내 학살로 돌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의 부재를 느끼게 된 것이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세 명의 방랑시인이 유대인의 축제 부림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온다. 그들의 목적은 생활비를 벌고 흥겹게 축제를 즐기는 것, 하지만 통명스런 주인 베리쉬로 인해 한판 연극을 벌이게 된다. 즉흥연극은 베리쉬로 인해 무거운 주제로 선회한다. 삼고로드에서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을 체험한 베리쉬는 무신론자로 변해 있었다. “이 집에서 신은 출입금지야”(p.34). “신은 날 찾아내서 날 쓰러뜨렸소... 신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짜증 나니까”(p.38). 분위기상 굳이 즉흥극을 하자면 베리쉬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생의 부조리를 건드리고 싶었다. 그는 학살의 책임이 신에게 있다고 여겼다. 가해자들이 신의 이름을 들먹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겼다. “그야 신은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삼고로드에서 신의 자비 운운하는 건 모욕이요, 오히려 그의 잔인함에 대해 말해야지...”(p.55). 결국 베리쉬는 신을 재판정에 세우는 검사역을 자청한다.

이 작품은 정통 희곡의 흐름을 따르는 듯 장면의 흐름이 서사적이면서도 어떤 장면에서는 부조리극(The Absurd Theater)의 극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부조리극은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극중 인물이나 사건 전개를 비약, 무질서 혹은 비대칭적 구조 안에서 역설적으로 진실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이다. 베리쉬가 제안한 즉흥극은 그런 의미에서 부조리극 상황이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고 혼돈에 빠져든다. 그들이 하는 대사는 의미없는 말이 되어 서로 엇갈린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처럼 관객은 어리둥절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불협화음이 현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 상황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

참혹한 상황을 고발하는 가운데 등장한 신부는 용서와 사랑을 부르짖는다.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유대인의 배반을 주장한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신부는 학살 현장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며 기도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인 신부의 행동은 종교적 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 증인이 한나와 마리아다. 두 여인은 사건의 희생자들로 폭력의 증인이었다. 여인의 고통이 죽은 자들의 억울함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다.

### III.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음유시인은 욕의 세 친구를 연상시킨다. 고난당하는 욕을 찾아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욕의 모습을 보고 정죄했다. 모든 고난은 욕이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베리쉬 앞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세 명의 인물 또한 베리쉬의 심정에 불을 지른다. 그들은 학살 피해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며 오히려 부림절 축제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욕과 베리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신임한다. 신에게 부르짖는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그럼 이 모든

것에 신은? 당신은 신이 두렵지 않소? 신조차도?... 거짓말 마시오. 온 세상이 우리 적일 때, 신 자신이 원수 편일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소?”(p.68).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필립 안시)란 제목이 시사하듯 참혹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할 말을 잃는다. 생의 부조리에 한방 먹은 듯 충격에 몸서리친다. 삶의 합리성은 산산조각난다. 베리쉬와 한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존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을에 다정하게 같이 살던 이웃들이 어느 날 폭도들에 의해, 그것도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이들에 의해 살해 당했다면 과연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현장에서 술 취한 신부의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극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샘은 멋쟁이다. 그는 사랑을 빌미로 여인을 매혹시키는 능력도 있다. 종교적으로 신심이 두텁다. 베리쉬가 신을 혹독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샘은 신을 변론한다. 모두가 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 샘만이 신의 변호인이 된다. 사람들은 샘의 깊은 신앙심이 존경스럽다. “신에 대한 믿음은 신 자신만큼 무한해야 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인간의 희생으로 존재한다면, 정말 안된 일이지요. 신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p.184). 다른 이들은 샘을 추앙하기에 이른다. 샘이 그들을 고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웅이라고 여긴다.

극은 종결을 향해 가고 베리쉬는 숨이 가빠진다. 베리쉬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내 마지막 숨을 다해 신에게 큰소리로 시위할 거요! 그리고 끝이 가까웠으니 난 더 크게 외칠 거요! 끝이 가까웠으니, 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죄라고 그에게 말할 거요!”(p.182).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유럽 문명의 전환점에 선 기독교를 성찰했다. 그는 기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다. 노예의 도덕으로 신앙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사랑의 이름으로 신앙인들을 무력화시켜 유럽을 병들게 한 유독한 세균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베리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기독교는 유죄다.” 지금도 신의 이

름을 빙자한 타락한 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는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 IV.

샬고로드의 참혹한 기억의 장소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현장은 마치 아우슈비츠나 트레블린카 같은 학살의 현장이다. 홀로코스트(Holocaust)라 불리는 유대인 학살이 벌어진 어둠의 장소이다. 이런 실존 앞에 선 유대인들은 고난과 부조리에 맞닥뜨린 현대인들의 상징이 된다. 샘은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가해자에게 권력을 주고, 피해자를 죽음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먼저 도달하게 한 은총을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샘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샘의 믿음에 경탄한다. “오 성자여, 신의 자녀들을 더 이상의 수치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p.188)한다. 위젤의 시선은 날카롭다. 샘의 정체는 사탄이었다. 보통 인간이라면 샘처럼 할 수 없다는 인간 한계를 인정한다. 휴머니즘을 부정하지 않는다. 종교적 위선보다 처절한 절규가 오히려 인간적이며 진실되다. 그것이 위젤이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근거이다.

〈샬고로드의 재판〉은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학살이라는 극단적 인간 상황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신앙할 수 있는가. 고통이라는 극단적 인간 한계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C.S.루이스는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기도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랴 믿고 있던 소년 루이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만다. 그 뒤 23년을 무신론자처럼 살면서 영적 방황을 한다. 회심 후 쓴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흑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

의 깃발을 꽂습니다.”(『고통의 문제』, 이종태 역, 홍성사 2003, p.144).

살면서 부조리한 상황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다. 때로는 설명 불가한 상황에 몰리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샬고로드 사건을 만난 베리쉬처럼 절규한다. 그렇다면 절규 그 자체가 모두 불신앙적인 것일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시 14:1)처럼 모두 어리석은 자로 정죄해도 되는 것일까. 성경은 욕기를 통해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므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증거한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2). 베리쉬의 절규는 원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변화무쌍한 인간 상황은 우리들을 느닷없이 혼란스럽게 한다. 때때로 우리는 신에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다. ‘실존에 처절하게 내몰리며 절규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현실을 참혹하게 경험하여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규하고 신에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는가! C.S.루이스의 고백처럼 고통으로 다가오는 실존으로 인해 오히려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통은 숨겨진 축복의 다른 얼굴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명언을 되새겨본다. “보다 더 참되게 회개하기 위하여 (차라리) 죄를 더 지어라.”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차라리 더 진지하게 절규하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샬고로드 같은 현실은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은 없다’고 실망하고 돌아서기 전에, 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진실의 깃발을 만날 수 있으리라. ☺